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드론과 스마트 산불단말기, 스마트 헬멧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K-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7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5명, 산림보호지원단 20명 등 4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주변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 소각, 무단 입산 행위를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주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자제해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일품장수흑염소 안용군 대표, 양곡 30포 기탁

일품장수흑염소(대표 안용군)는 3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양곡 10kg 30포를 산서면(면장 구선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양곡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먹거리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용군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산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후원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설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선서 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훈훈한 설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정성을 담아 복지사각지대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 품질향상 간담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1일 청사에서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산림기능인협회와 변화된 산림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산림사업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산림사업의 역할을 공유하고 중대 재해법에 따른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다양한 숲가꾸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영림단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와 산림사업 추진 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고품질의 산림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에서 이어진 '사랑의 손길'

영농조합법인, 장학금 100만원 · 제일건재, 김 453박스 기탁

무주영농조합법인은 3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명제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은 어렵지만 무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무주의 아이들을 보듬는 일에 앞장선다는 생각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게 됐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크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영농조합은 2020년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영농인 5명이 뜻을 모아 설립한 곳으로 농작물 수확 인력이 부족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무주제일건재 이승훈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453박스(5백만 원 상당)를 무주군에 기탁했다.

이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날이 춥고 설이 가까워지니 걱정이 돼서 준비를 했다"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기탁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황인홍 군수는 "어려운 때지만 장학금과 성금으로 지역과 이웃을 보듬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무주가 견디는 것"이라며 "몇몇에서 시작된 나눔이 지역 전체로 퍼져 결국, 군민들 가슴을 데우고 무주를 일으키는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원시, 자활사업단 희망키움 2호점 미태리 개점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충근)는 3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단 미태리(Mitary)를 개점하였다.

미태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170업체 중 파스타 브랜드의 가장 가성비와 맛이 좋은 외식업체로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가맹점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오픈한 미태리는 양질의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5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4명이 청년자활근로자로 추후 설립요건 충족 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게 된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남원시는 자활사업단의 유형다변화를 꾀하고 취약계층의 꿈을 실현하는 자활사업단 개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정산업개발, 진안군 사회복지시설에 돼지갈비 기탁

서정산업개발(대표 서원필)이 3일 진안군을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돼지갈비 500kg(66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전주에 소재한 서정산업개발은 농업회사법인이다.

위문 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방문 제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생활시설 9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아동시설 3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원필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며 "이번 기회로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감사하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돈협회 장수군지부, 돈육 1000kg 기탁

대한한돈협회장수군지부(지부장 유진성)는 3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돈육(2kg) 500묶음(400만원 상당)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대한한돈협회장수지부는 매해 명절마다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기탁된 고기는 관내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 예정이다. 유진성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대한한돈협회장수지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원광대 한약학과, 한약사 국가시험 재학생 전원 합격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약학대학 한약학과가 제22회 한약사국가시험에서 재학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적을 올렸다.

지난달 시행된 올해 한약사 국가시험은 서울과 전북지역 등 2개 시험장에서 진행됐으며, 전체 응시자 136명 중 115명이 합격해 84.6%의 평균 합격률을 보였다. 4학년 재학생 33명 전원이 합격한 원광대 한약학과는 1996년 학과가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22회 치러진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올해까지 총 9차례 100% 합격을 이뤄냄으로써 명문 한약학과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유공자 표창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2일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신고해 검거에 큰 역할을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태우고 남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 현장경찰관과 택시기사와의 전화통화로 차분하게 대처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편 강태호 서장은 "시민의 관심과 제보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전순종 씨 주택화재진압 소화기 증정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 주택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전순종(65)씨에게 소화기를 전달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고 3일에 밝혔다.

화재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분경 고창읍 덕산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쌓아든 종이박스와 건조 중인 농산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마을을 지나가던 중 화염과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다급하게 소방서에 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진압에 기여한 공로로 뒤늦게 알려져 '더블보상제'에 따라 사용한 소화기의 두 배인 두 대의 소화기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